

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

8장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복음이 하는 일 (롬 8:1~4)

1. '율법과 복음' 정리

A.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

B. 율법을 경험하는 것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 자신을 죽게 만드는 일을 한다(7:13).

2. 율법의 딜레마 : 율법이 할 수 없는 일(3)

정작 율법은 자기가 사람의 영혼 안에 일으킨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줄 수 없다.

율법은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완전한 의를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필요로하는 것은 두 가지

: 1) 죄책에서 면제되는 것 2)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

3. 복음 안에서 성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3~4).

율법이 일한 자리에서, 그리고 율법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복음은 일을 시작한다.

율법의 요구는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이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다.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죄책에서 면제되게 하신 일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오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일은 자기의 몫이 된다.

그 결과 그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일에서 넘어질 때마다 옛 남편인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로 가게 되고 죄책감의 포로로 붙잡히게 된다.

복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손인 우리에게 대한 율법의 일부 요구가 아니라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 일이다. '육신'은 새롭게 되지 않은 인간 본성, 성령 안에 있는 생명과 대조를 이룬다.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의 확실성을 주려고 쓰여졌다.

확신과 믿음

우리는 확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롬 5:2)?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롬 5:3)?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복음에 대한 무지는 신자들에게서 확신과 기쁨을 빼앗아간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나의 열심도, 나의 선함도, 나의 노력도 아니다.

구원은 오직 성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했고 성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다. 구원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엔 확실하다.

4. 정죄함이 없다!(1~2)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순간에는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정죄함 아래로 들어오는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다!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에 대한 죄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불신자의 죄와 신자의 죄는 다르다.

불신자의 죄는 율법을 범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불신자의 죄는 지옥에 갈 죄다.

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복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게 되었는가? (2절)

신자가 매일 죄와 싸워 이김으로써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은혜가 율법으로부터 신자를 해방시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정죄가 없다.

5. 정죄함이 없는 유일한 조건

: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